

‘무빙’, 디즈니+ TV쇼 1위 ... 포브스 “호소력 짙은 이야기”

한국의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드라마 ‘무빙’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24일 글로벌 OTT 플랫폼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론에 따르면 ‘무빙’은 2023년 34주차 디즈니+ TV쇼 월드와이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무빙’은 디즈니+ TV쇼 톱10 차트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5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10, 11회가 공개된 다음날인 24일 기준 OTT 통합 검색 및 추천 플랫폼 키노라이츠에서 통합 랭킹 1위를 달성하며 뜨거운 화제성을 증명했다.



▲ 드라마 ‘무빙’ 포스터. 사진=디즈니+

미국 매체 포브스는 “호소력 짙은 감정적 서사를 지닌 이야기”라고 했으며 음악 평론지 NME는 “‘무빙’이 단 하나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박찬욱 감독과 강풀 작가의 생생하게 공명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고 호평했다. 또한 스타일라이프 아시아 홍콩은 “모든 사람들을 몰입하게 하는 특별하고 멋진 스토리라인”이라고 평했다.

‘무빙’은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아픈 비밀을 감춘 채 과거를 살아온 부모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지난 9일 7개의 에피소드 공개 후 매주 수요일 2회씩, 그리고 마지막 주 3개등 총 20개 에피소드를 공개한다.

미국서 20년 만에 재개봉한 ‘올드보이’ 흥행

미국에서 20년 만에 재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대표작 ‘올드보이’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 21일 미국의 영화 흥행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에서 재개봉한 ‘올드보이’는 20일까지 닷새간 88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박스오피스 12위에 올랐다. 이는 상영관이 250개로 적은 것을 고려하면 매우 준수한 성적이며 2005년 첫 개봉 당시 거둔 누적 수입 70만7천달러를 넘어선 금액이라고 연예매체 테드라인은 전했다.

한국에서 2003년 개봉한 이 영화는 이듬해 한국 영화 최초로 칸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으며, 전 세계에서 1천5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테드라인은 ‘올드보이’의 재개봉 수입이 곧 100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며 미국에서 재개봉작의 흥행 수입이 100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LA타임스의 영화 전문가 마크 올슨은 지난 18일



▲ 영화 ‘올드보이’ 한 장면. 사진=cjerm

“다음주 LA에서 봐야 할 최고의 영화들” 첫 번째 작품으로 ‘올드보이’를 꼽으면서 “‘올드보이’는 한국 영화를 전 세계 관객에게 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스피어스, ‘세 번째 이혼’ 후 파격 행보



▲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 사진=스피어스 SNS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1)와 세 번째 이혼 후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스피어스는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남자와 파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스피어스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들을 초대해 밤새 놀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스피어스는 상의를 탈의한 채 누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스피어스는 지난해 6월 12세 연하 모델 샘 아스가리와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으나, 최근 파경을 맞았다. 아스가리는 지난 16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상급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혼 사유로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화해할 수 없는 견해(성격) 차이’를 언급했다.

이후 스피어스는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모두가 아시아디피 아스가리와 나는 더이상 함께 하지 않는다. 누군가와 함께하기에는 6년은 꽤 긴 시간이다. 난 더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었다.”고 털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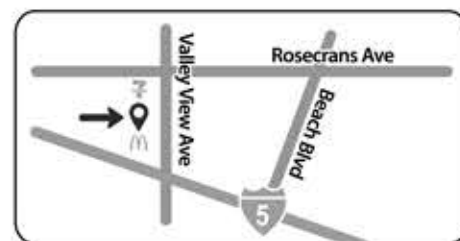
이로써 스피어스는 세 번째 이혼을 겪게 됐다. 앞서 스피어스는 2004년 고교 동창인 제이슨 알렉산더와 결혼했지만 55시간 만에 이혼하며 구설에 올랐다. 같은 해 백댄서 출신 케빈 페더라인과 재혼해 두 아들을 뒀으나 2006년 이혼했다.

OFFICE RENT 오피스 렌트 (라미라다, 산타페 스프링스 지역)



밸리뷰와 로즈크랜스 코너

- 989 sqft.
- 2룸 2층
- 교통 편리



<전화문의>

949.501.8555

Leah Ivy Chang Realtor